

특별
세션



River & Culture

제5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 개최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제5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가 전국의 하천관리 공무원 등 총 1,150명이 참가 한 가운데 2009. 4. 27(월)~4. 30(목)까지 2차에 걸쳐 대전컨벤션센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연찬회 행사는 그간 우리의 생명줄인 하천을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바꾸는데 일조해 왔으며,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참여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방향을 선도하였다.



제5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 전경

특히 올해에는 홍수·기름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하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하천이용을 극대화하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이니 만큼 연찬회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신기술과 최신 시공사례 전시회가 현장실무자들이 하천 관리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매년 제주도에서 열렸던 연찬회 개최장소를 충청권(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함으로써, 이번 연찬회 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올바른 하천관리」와 연계하여 예년보다 더욱 의미 있고 알찬 내용으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사는 국토해양부 및 대전광역시, 지자체, 협회 회장단 및 회원(사) 등 각 기관(단체) 대표로 구성된 총 11인이 참가한 연찬회 개막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이어서 펼쳐진 개막식에서는 우리협회 김국일 회장의 개회사와 대전광역시 김홍갑 행정부시장의 축사, 국토해양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과 송기섭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치사가 이어졌으며, 하천업무 유공자장관표창 6개 기관·개인/협회장표창 17인) 및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최우수작 6선/우수작 20선)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연찬회 주제발표에서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교 조사 분석팀장의 「4대강 살리기 사업소개 및 추진계획」을 비롯,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장재덕 4대강사업팀장의 「4대강 살리기 사업·선도사업(행복지구)」, 한국외국어대 강진갑 교수의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조성방안」, 국토해양부 하천계획과 이종구 사무관의 「친환경적 하천관리 청책방향 : 지방하천 정비사업(생태하천)」, 울산광역시의 「다시 태어난 태화강의 변화와 미래」 등을 포함 총 22회에 걸친 정부 정책방향,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 각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하여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였다.

한편, 본 행사와 함께 개최된 「친환경 하천자재 및 공법 전시회」는 역대최다인 총 67개의 전시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어, 국내 하천관련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찬회 참가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환영 리셉션(중식)에서 는 참가기관(단체) 소개 및 상호교류의 장이 마련되어 모든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으로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계속해서 이어진 환영 리셉션에서는 우리협회가 하천의 보호와 물의 중

요성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하천분야의 발전과 위상제고를 위해 제정한 「하천의 날(매년 5월 2일)」 선포식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정부의 친환경정책의 청사진으로서 하천에 대한 국민의 지지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출판기념회 행사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매년 시행하는 하천사진 공모전 당선작 및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사진전시회가 행사기간 동안 마련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하고 의미 깊은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제5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올바른 하천관리」를 주제로 하여,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의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하천담당 공직자 및 전문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미래지향적인 하천분야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환함으로써 하천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행사가 되었다.

국토해양부와 우리협회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화하여 자연중심의 환경지향형 하천 보전 및 복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통한 국토 창조에 기여코자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제5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 행사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회원(사)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하천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여 정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